

# 유기금속 초분자 합성연구 “영예”

성균관대 손성욱 교수 논문 Chemie 표지 장식 ... 촉매 개발 기대

성균관대 손성욱 자연과학부 교수가 공개한 <유기금속 초분자 합성> 논문이 세계적인 권위의 화학전문지 Angewandte Chemie 최근호 속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고 성균관대가 12월8일 발표했다.

성대는 손성욱 교수가 발표한 <로듐 유기금속 화합물의 자기조립에 의한 초분자 합성연구> 논문이 안게반테 케미의 속표지 논문으로 게재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손성욱 교수의 연구성과는 기존 분자의 성질 뿐만 아니라 구조에 기인한 새로운 반응성을 증명하고, 나아가 새로운 차세대 촉매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손성욱 교수는 “자기조립을 이용한 새로운 초분자 합성은 10여년간 화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로 최근 새로운 구조의 초분자 합성과 더불어 기능성 개발에 많은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기존의 잘 개발된 유기금속 화합물을 이용해 차세대 촉매의 새로운 개발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에 사용된 로듐은 금보다 10배나 비싼 고가 금속으로 다양한 유기반응에 촉매활성이 뛰어나 로듐이 포함된 다양한 유기금속 화합물이 개발됐다.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안게반테 케미는 과학계의 Nature와 Science에 이은 권위 있는 화학 전문지로 미국화학회가 발간하는 JACS와 쌍벽을 이루고 있다.

<화학저널 2005/12/13>